

천국은 마치

[오늘의 비유]

3강. 가라지 비유(마태복음 13:24-30)

돌아보기

1.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한 주간의 삶을 잠시 돌아본다면?
2. 지난 주 강의 때 기억에 남는 것은?
3. “가라지 비유”를 읽고 느낀 점은?

📖 '가라지 비유'(마 13:24-30) 다양한 번역으로 읽기

- 개역개정 → 새번역 → 새한글 → 메시지 성경 등을 읽어 보기

📖 '가라지 비유'에 나오는 등장 인물과 장치

- 좋은 씨 vs 가라지
-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 vs 원수
- 집 주인의 종들
- 추수, 불사르고 vs 곳간 등

📖 '가라지 비유'의 문맥

- 마 13:1-23 :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 (하나님 나라(천국)가 선포되고, 확장됨)
-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는가?”에 이어 “왜 하나님의 나라에 선과 악이 함께 공존하는가?”라는 질문

📖 주후 1세기 중동 지역의 농사와 가라지

- 밭에 씨를 뿌리고 수확하는 것은 생계와 관련되어 매우 익숙한 주제
- 밭에 씨를 뿌린 뒤, 몰래 가라지(잡초)를 뿌리는 일은 실제로 농경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악의적 행위'
- 가라지와 밀이 비슷하게 자라다가 수확기에만 확실히 구분이 가능
- 가라지는 독성이 있어 곡식에 섞이면 해악을 끼침

📖 마태복음 공동체의 상황

- 유대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 참된 신앙인과 그렇지 않은 자들이 섞여, 갈등과 분열의 문제가 있는 상황
- 구분이 어려운데, 쉽게 정죄하고 성급하게 심판하려고 하는 시도

예수님의 설명(마 13:36-43)

- 좋은 씨를 뿌리는 이 : 인자
- 밭 : 세상
- 좋은 씨 : 천국의 아들들 (cf. 마 13:3,19 씨 - 천국 말씀)
- 가라지 : 악한 자의 아들들
- 가라지를 뿌린 원수 : 마귀
- 추수 때 : 세상 끝
- 추수꾼 : 천사들
-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시 1:4-6, 전 3:17, 마 25:31-46, 계 14:14-20)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에는 선과 악이 공존합니다. 쉽게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인내하면,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악한 자의 자녀들은 심판을 받지만,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다음 강의(10/12)]

마태복음 13:31-33 “겨자씨와 누룩 비유”

[새번역 성경]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

31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밭에 심었다.
32 겨자씨는 어떤 씨보다 더 작은 것이지만, 자라면 어떤 풀보다 더 커져서 나무가 된다. 그리하여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33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 나라는 누룩과 같다. 어떤 여자가 그것을 가져다가, 가루 서 말 속에 살짝 섞어 넣으니, 마침내 온통 부풀어올랐다.”

[새한글 성경]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

31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더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겨자씨와 같아요. 어떤 남자가 겨자씨를 가져다가 자기 밭에 뿌렸습니다.
32 겨자씨는 어떤 씨보다도 작습니다. 그러나 자라난 뒤에는 여느 풀들보다 크게 자라 나무가 됩니다. 그래서 하늘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들에 깃들게 됩니다.”
33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누룩과 같아요. 어떤 여자가 누룩을 가져다가 밀가루 반죽 21리터 속에 섞어 두어서 보이지 않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마침내 반죽 전체가 부풀어 올랐습니다.”

[메시지 성경(허계영)]

31-32 예수님께서서는 이야기 하나를 또 들려주셨죠. “하나님 왕국은 농부가 한 알의 솔씨를 심은 것과 같소. 솔은 씨앗일 때는 아주 작지만, 수년간 자라 큰 소나무가 되지. 독수리들이 둥지를 틀 정도로 말이요.”
33 그리고 이야기 하나를 또 들려주셨어요. “하나님 왕국은 한 여인이 보리빵 수십 개를 만들려고 반죽에 넣은 이스트 같대요. 얼마 있다가 반죽을 부풀리는 이스트 말이요.”